

일상회복 2차 전환 유보

군산시, 4주 더 유지... 고령층 3차접종 청소년 예방접종 속도감 있게 진행

일상회복의 2차 전환이 유보되고 4주간 더 유지된다. 30일 강임준 군산시장장은 비대면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일상회복의 2차 전환을 유보했다고 밝혔다. 또 현재의 일상회복 수준을 4주간 더 유지하며 방역상황을 안정화시키는 특별 방역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고령층에 대한 3차 접종과 청소년, 고령층 등 미접종자의 예방접종을 최대한 속도감 있게 실시할 예정이다. 백신패스 유효기간도 6개월까지만 인정된다. 또

모든 확진자는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하고 병상 가동률을 높여 더 많은 환자가 치료를 받게 될 전망이다.

강 시장은 "11월 들어 군산시에 149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이번주에는 매일 10여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엄중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방역 수칙이 지켜지지 않고 경로당을 중심으로 가족까지 잇따른 감염사례가 늘고 있어 방역수칙 준수가 어느때 보다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백신접종은 감염예방뿐만 아니라 중증 예방과 사망의 가능성을 명백하게 낮출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며 "소아청소년은 물론 아직까지 접종을 하지 않은 시민은 백신 접종을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군산=한경봉 기자

'부동산 특별조치법' 추진 순항

익산시, 한시적 시행... 11월말 기준 357건 515필지 확인서 발급

익산시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 특별조치법)이 내년 8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됨에 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8월부터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따라 11월 말 기준 약 646건 950필지의 확인서 발급 신청이 접수되어 처리 중에 있으며, 이 중 총 357건 515필지의 확인서를 발급했다고 밝혔다.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 신청대상은 토지·임대주택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와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건물이다.

1998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상속 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부동산으로 읍·면은 모든 토지와 건물이 적용 대상이며, 동 지역은 농지와 임야만 적용된다.

신청은 부동산 소재지별로 위촉된 보증인(자격보증인 1인 포함) 5인의 날인이 된 보증서와 확인서 발급 신청서를 작성해 시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 이후 업무 담당자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현지조사 등을 완료한 후 2개월간 공고하고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확인서를 발급한다.

한편 이전 특별조치법과 달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등기원인이 상속을 제외한 매매, 증여 등의 경우 공시지가의 20~30% 범위 내 과징금을 부과한다.

/익산=이득훈 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시, '희망2022나눔 캠페인' 오늘 시작

군산시는 연말연시를 맞아 소외된 이웃들의 삶에 희망과 용기를 북돋워 주고 나눔 문화 확산과 더불어 사는 따뜻한 지역분위기 조성을 위해 '희망 2022나눔캠페인'을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와 공동모금회는 지난해에 캠페인을 통해 10억9천9백만원의 성금을 모금해 전북 도내 1위를 달성했다. 올해는 지난해 모금액의 80퍼센트를 나눔 목표액으로 설정하고, 나눔의 기쁨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캠페인의 모금액은 코로나 19 일상회복 지원, 위기가정 긴급지원, 의료비 및 월동난방비, 사회복지시설·기관 지원 등 저소득계층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군산=한경봉 기자

군산시립도서관 '월간 동네서점 코너' 운영

군산시 시립도서관은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흥미있는 책읽기 기회를 위해 지역서점이 추천하는 북큐레이션 '월간 동네서점' 코너를 신설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북큐레이션은 북(Book)과 큐레이션(Curation)의 합성어로, 특정 주제에 맞는 도서를 선별해 독자에게 안내하는 것으로 시민들의 독서 흥미를 유발하는 목표를 설정, 독서 의욕을 고취시키고자 한다.

이번 월간동네서점 코너는 군산시립도서관, 늘푸른도서관, 산들도서관(3개소)에서 운영하며, 각 지역서점에서 주제를 정하고 관련 책을 전시하고 '북백'에 담아 대출 가능하도록 재미있게 이용할 수 있게 했다.

12월 군산시립도서관 본관에는 예스트서점의 '크리스마스에 가족과 함께 읽을만한 책', 늘푸른도서관에서는 마리서사의 '키워드로 돌아보는 2021', 산들도서관에서는 한길문고의 '모든 일이 우울하고 삶에 의욕이 없을 때'라는 주제로 전시되며, 매월 지역서점 운영자들의 감각있는 큐레이션을 만나볼 수 있다./군산=한경봉 기자

익산시, LH행복마을 작은도서관 개관

익산시가 지역주민들의 문화 욕구 충족과 쾌적한 독서환경 제공을 위해 건립한 LH행복마을 작은도서관이 생활밀착형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했다.

시는 정현을 익산시장을 비롯한 유재구 시의장 LH 주거복지본부장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사무처장, 이파트 임주인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관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개관식은 축사와 감사패 기부 도서 전달 등 개관식 행사와 도서관 시설 내부관람 등의 순서로 진행했다.

인화동 LH 행복주택 관리동에 있는 LH행복마을 작은도서관은 익산시 29번째 사립작은도서관으로 LH에서 추진하는 전국 임대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을 대상으로 한 리모델링 공모사

업에 선정, 사업비 5천만원이 투입돼 건립됐다.

해당 도서관은 이번 리모델링을 통해 어린이·청소년·고령자 등 모든 계층을 위한 생활밀착형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했다.

도서관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지역주민 누구나 대출·열람이 가능하며, 도서관 내에서 진행되는 독서문화 행사에도 참여할 수 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축사를 통해 "LH 행복마을 작은도서관이 아이들에게는 즐거운 놀이터가 되고, 어르신들에게는 노년의 즐거움을 나누는 휴식처로서 주민 화합과 소통의 문화사랑방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익산=이득훈 기자

익산시, 모현도서관 '미디어 창작공간' 조성

익산시는 1인 미디어 시대에 걸맞은 콘텐츠 제작이 가능한 미디어 창작 공간을 조성한다.

모현도서관은 12월 누구나 미디어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촬영장비 등이 비치된 미디어 창작공간 조성 공사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의 '2021년 스마트 K-도서관 조성사업'으로 정보기술을 활용한 도서관 환경을 구축하고 공공도서관 내에서 콘텐츠 제작 체험할 수 있는 창작공간을 마련하는 것이다.

모현도서관 스마트 K-도서관은 지하 1층 휴게공간 리모델링을 통해 방음

및 전기통신 시설 구축, 콘텐츠 제작을 위한 방음 장비를 구비하여 지역주민에게 미디어 콘텐츠 창작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성한다.

스마트 폰을 활용한 1인미디어 제작이 대중화 됨에 따라 지역 주민들에게 콘텐츠 창작 및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다.

코로나 19로 인한 비대면 수업을 위한 용도나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1인 미디어의 영상 촬영 등 다양한 미디어 제작환경에 이용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모현도서관 스마트 K-도서관은 내년 1월 정식 운영할 예정이다.

/익산=이득훈 기자

'익산시 마을자치연금' 확대

여산면 '수은마을' 선정, 저온저장고 시설사용료 등 민관공동 프로젝트로 주목

전국 최초로 도입해 성공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익산 마을자치연금이 확대 운영된다.

익산시는 앞으로도 마을자치연금을 순차적으로 확대해 귀농·귀촌 인구를 유입하고 어르신들이 행복한 '농촌공동체 회복 프로젝트'를 구축해나갈 방침이다.

시는 지난 30일 국민연금공단,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TYM 등 3개 기관과 지역공동체 삶의 질 향상 프로젝트인 익산시 마을자치연금 제2호 마을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전국 제3호이자 익산 제2호 마을로 선정된 곳은 여산면 '수은마을'로 익산시 양파 주요 재배지로, 협약을 체결한 각 기관은 주민들의 수요를 반영하여 저온저장고를 수익발생시설로 지원할 예정으로 저장고시설사용료를 통해 마을자치연금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이 시설을 통해 출하시기를 조절하여 기존에 저가로 판매해 오던 양파를 가격상승에 맞춰 판매가 가능하므로 마을 소득창출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익산시의 국민연금공단,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TYM 등 협업기관은 업무협약으로 사업추진을 위한 기초발판을 마련하여 마을자치연금 사업을 본격화한다.

이번 사업은 익산시의 협업 기관이 수익 발생이 가능한 시설 또는 설비



시는 지난 30일 국민연금공단,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TYM 등 3개 기관과 지역공동체 삶의 질 향상 프로젝트인 익산시 마을자치연금 제2호 마을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를 지원하고 발생수익과 마을공동체 운영 수익을 분배해 마을에 거주 중인 만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지급하는 사업이다. 초고령화 시대의 농촌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복지를 확대하기 위해 노후 소득을 보완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익산시는 농촌지역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민관 공동으로 마을자치연금을 전국 최초로 도입했으며 전국 제1호 마을(성당포구마을)을

성공적으로 탄생시켜 전국적 표본이 됐다. 완주군은 이를 벤치마킹하여 전국 제2호 마을을 탄생시켰다.

정현을 시장은 "익산시는 마을자치연금의 선두주자로서 노후소득 강화를 통해 농촌 고령인구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선순환 체계 구축과 고령인구에 대한 공동체 커뮤니티 케어로 노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효과를 더욱 확대하는데 앞장 서겠다"고 전했다. /익산=이득훈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아동학대 신고번호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